

봉사부 탐방기 <주방봉사부>

새벽조원들의
열정이
녹아있는
국수 한 그릇
드세요!



3년여의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K"집사 부부를 교회에서 반갑게 조우했다.

첫마디가 '와!' 주님의 교회 국수생각이 너무 간절했는데 오늘 곱빼기로 먹었습니다. 그 포만감에 행복한 표정이라니..

주님의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사랑거리 저편에 구수하고 담백한 국수의 향미를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 신년들어 첫 번째로 주방 봉사부를 찾아 총무(이원철안수집사)와 마주했다. 새벽 7시 그의 이마엔 벌써 땀방울이 송글송글 열려 있었다.

하루 몇분이 드시냐고 묻자 평균

2000명 조금 웃돈다.

"육수요? 천하제일의 웰빙보약이지요. 멸치,다시마, 양파, 무, 대파, 북어머리에 천일염으로 간하고 새벽4시부터 6개의 대형 솥가마에 1시간반이상을 푹 고아낸 진국중 진국이지요"

아! 국수 한 그릇에도 새벽조원들의 열정들이 녹아있었구나 고맙고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성도들께 바램이요? 육수의 낭비지요" 그릇비울때 최고의 진국을 잔반통에 쏟아내는 모습에 무척 안타까웠나보다. '보약이 버려지다니...'

전원 자원봉사 3개조로 운영되며 구역별 순회봉사와 개인자원봉사로 꾸려

지는데 일반성도의 자원봉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30분이면 어떻고 1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주방봉사는 팀웍입니다. 눈빛만으로도 통하지요 신규봉사자도 10분이면 바로 자기 할일들을 찾게 되거든요"

삶고, 닭고, 건조하고, 정리하고 식당바닥까지 청소가 끝나는 오후 3시 북적대던 식당엔 조용한 적막감 마저 감도는데 하나, 둘 차한잔씩 놓고 다음주를 대비하며 비로소 처음으로 의자에 앉아보는 부원들... 그들의 표정엔 하나같이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다소곳이 기도하는 그 자세가 바로 주님의 교회 잔치국수의 진정한 맛의 원천이 아니겠는가.

그 모든분들께
"주님의교회
국수의 달인"이란
칭호를 드립니다.
환이팅!!!



새가족 수료식의 날



새 가족부에서는 지난 3월1일 (주일) 4주간 교육을 마친 새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65명이 모였습니다.



박원호 담임목사의 간단한 교회 소개로 마지막 교육을 마치고, 대화하는 시간과 최현배 집사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친교의 시간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김관규 성도님의 간증과 나눔의 시간으로 새 가족의 마음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며, 각 교구별 목사님들과 담당하시는 장로, 권사님들과 서로 소개하고, 간단한 만찬과 함께 수료식을 잘 마쳤습니다.

유기영 목사

※정정기사

* 지난호에 교구편성표에 누락이있어 다시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장로	장일형	김양자	박종규	신정웅	김용일	이영자
권사	남현숙	박경옥	이영남	우일강	오점덕	이경희
안수집사	김은성	장득순	지호선	왕승근	박동수	지유철

2009 주님의교회

어와나(AWANA) 중등부(TREK)

어와나 중등부 (TREK)란?

중학생 시절은 그들이 영아기 이후 겪었던 모든 변화 이상의 모든 영역에 걸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청소년 사역입니다. Trek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말 또는 하루 저녁의 과제가 아니라, 매일, 매 시간에 걸쳐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상 중학교 1,2,3학년 장소 5층 세미나실

문의. 박요한전도사 010.3286.0691

Trek



“패” 집사
잠실동
이머티어

목사님! 저는 하루에 수십번씩 거울을 보며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항상 뽐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목사님! 제가 교만한 죄를 지은것 같지요 어쩌면 죽을까요?



팬여사를 뚜렷이 쳐다보시던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팬집사님!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일 뿐입니다! ..



|오늘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통 권 _ 제 244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3월 8일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2009.2.28일 오후 7시30분 개회예배의 모습,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득메운 성도들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서진석역팀

목적이 이끄는 40일 개회예배를 준비하며

2008년 12월 6일 토요일, 새벽모임을 시작으로 개회예배 준비팀원들은 매 주일마다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준비팀원 모두가 "기도"가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개회예배 전 40일간의 고리기도를 이어왔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동안 이 개회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임을 알게 하였고, 준비팀원들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여는 첫 예배이기에 주님의 교회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며, 축복하는 시간으로 구별 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의 시작이 열리며,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알곡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배/교제/훈련/사역/전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자 무대장식을 표현하였고, 스무살 풍성한 성년의 나무로 성장한 주님의교회가 알곡으로 열매 맺어 다섯 가지 주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푸르른 잎을 달았습니다.

그 푸르른 모습대로 많은 지체들이 정성을 다한 개회예배의 현장에는 감격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40일간 진행되는 주님의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 짐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 하소서...

홍기협 안수집사

God bless you ! May God be with you !

창립 20주년 청년기의 주님의교회가 한단계 영적도약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주신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목적대로 살자는 40일간의 캠페인.

캠페인기간동안 구성된 소그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침체된 구역모임을 발전시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도모하고자 2009년 2월28일 저녁7시 본당에 가득모인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나현수 전도사의 찬양인도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 공동체로 예배실은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했고, 카운트다운과 팡파레 연주로 드디어 개회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 속에서 성도들은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다섯가지 주제를 가슴에 담았고, 담임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이어 헌신서약의 시간을 통해 40일의 여정에 함께하는 결단으로 나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 군사,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했다. 토요일 저녁에 진행된 시간이었지만, 주님의교회는 또 한번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의 감동은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슴에 깊이 전달되었다. (예배현장 화보 3면에 계속) 임경수 기자



주요
기사

▶개회예배현장 화보

2면

▶사순절의 형성과 역사적 의미

3면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

4면

▶부서탐방 - 주방봉사부

4면

문의, 김은성 안수집사 011.204.4181



목적이 이끄는 40일 개회예배 은혜와 다짐의 현장속으로..

2009.2.28 토요일 저녁 7:30 대예배실에서 있었던 개회예배의 은혜로운 현장을 화보로 담아보았다.

- ❶ 우리 부모님 PD40일 잘 마치도록 저도 도울게요!
- ❷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슴깊이 되새긴다
- ❸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헌신의 서약 할 준비를 한다.
- ❹ 팡파레의 소리로 "목적이 이끄는 40일" 개회를 모든 성도에게 알린다.
- ❺ 캠페인 시작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드리는 성도
- ❻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열정적인 찬양팀의 모습



교회절기안내

사순절의 형성과 역사적 의미

성서에 부활절의 준비 기간으로서 사순절을 언급하는 구절은 없다. 하지만 현대 교회들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참회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이브인 토요일(Easter Eve)까지 사순절 40일을 지키고 있다. 물론 이 6주간 속에 6번의 주일은 40일 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십자가 사건을 중요시 하는 교회에서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가장 중심적인 절기 중에 하나이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금식하는 참회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 전 토요일(Easter Eve)까지의 40일간을 말한다.

〈참고도서〉 George M. Gibson, The Story of the Christian Year (New York : Abingdon-Cokesbury Press, 1945), p. 92.

사순절은 라틴어로 “40일”을 뜻하는 “quadragesima(사순절의 제1주)”라고 부르며, 헬라어로 “tessaracoste”라고 한다. 사순절이란 말은 성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순절을 가리키는 40일이라는 용어의 최초의 언급은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이며

〈참고도서〉 Holy L. Hickman, Don E. Saliers, Laurence H. Storky and James F. White, The New Handbook of the Christian Year (Nashville : Abingdon Press, 1993), p. 22.

그 후 주후 348년 예루살렘의 감독 시릴(Bishop Cyril of Jerusalem)은 세례 예비자들에게 교리교육을 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참회를 위한 40일

간의 은혜의 긴 시간을 가져야 한다”

〈참고도서〉 William Teller, trans, Cyril of Jerusalem and Nemesis of Emesa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55), p. 68.

라고 말했는데 이는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부터 40일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근거가 된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초대 교회의 삶과 신앙을 반영하는 교회력이 특히 부활주기(사순절-부활절-오순절 주기)와 크리스마스 주기(대림절-성탄절-주현절 주기)는 4세기 말에 그 형태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참고도서〉 Holy L. Hickman, The New Handbook of the Christian Year, p. 24;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p. 81.

사순절의 영어적 표현인 “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의 낱말 “Lencthen”에서 온 말로서 그 본뜻은 “Spring (봄이 올 때까지 날짜를 늘인다)”을 의미한다.

〈참고도서〉 George M. Gibson, The Story of the Christian Year, p. 92;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p. 271; 김소영, 『현대 예배학』(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3), p. 194.

따라서 사순절을 가리키는 영어적 표현은 사순절의 분위기나 메시지를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던 매우 중요한 관습에서 유래했으며, 특히 부활절 날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최종적으로 훈련을 받는 단계였다. 사

“

십자가 사건을 중요시 하는 교회

에서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가장

중심적인 절기 중에 하나이다. 사

순절은 부활절 전에 금식하는 참

회의 수요일(Ash Wednesday)부

터 부활절 전 토요일(Easter Eve)

까지의 40일간을 말한다.

”

순절 전에 세례 예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헌신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 원래 사순절 기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4세기 이후에는 여러 지역에서 6주간으로 표준화되었으며, 그 뜻은 “quadragesima(사순절의 제1주)”에서도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6주간 중에서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록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철저히 실천했던 곳이라 하더라도 주일만큼은 금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6주간 동안의 주일을 제외하면 40일에서 4일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 4일을 보충하기 위해서 “참회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참고도서〉 정장복외 [예배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p.181-182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며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금식의 기간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뒤 돌아보아야 하는 참회의 기간이다. 자기 비움과 자기 나눔의 시간이며 경건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간이다. 2009년 사순절의 기간에는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목적을 돌아보고 부활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주님의교회 온 성도들의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주형 전도사



40일 새벽 예배 !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 교재 진도에 맞추어 진행되는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

사 44:1-8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택 (계획)속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속에서 구원 받았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좋아 한다고 한다. '우연'이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오해 때문이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속에는 강한 집착이 있어 자기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의 목적안에서 나의 자유함을 포기했을 때 모든 것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소유함이다. 새가 날개를 단것처럼 더욱 더 자유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로 알고 나아가며 이 땅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땅을 아름다운 향기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임연옥 집사